

“한일터널은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여는 길”



사진 이장환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는 롤러코스트를 탄 것처럼 어지럽다. 양국 관계는 그동안 일본의 한반도 침탈이라는 역사적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일본 동북부 일대를 휩쓸고 간 대지진과 쓰나미 사태를 계기로 근래 들어 가장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일본 정부는 새로 개정되는 중학교 교과서와 외교 청서를 통해 양국 사이에 가장 민감한 현안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펴는 등 또 다시 냉각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한일 양국이 모처럼 조성된 해빙기를 이어가지 못한 채 독도 문제로 인해 과거로 돌아가는 작금의 현실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한일터널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김 대표는 한일의원연맹 부회장과 재일동포 법적지위위원회 위원장을 거친 대표적 일본통이며, 현재 한일친선협회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동북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전례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 국민을 돕기 위해 과거의 악몽을 전부 잊은 듯 우리 정부와 국민이 모두 나서서 구호대를 파견하고 모금을 하는 등 일본 사람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우호적인 태도를

손백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본이 그 반대의 길로 가면서 일이 어렵게 꼬이고 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독도 영유권 문제나 역사 왜곡 등을 서슴지 않은 채 또다시 발목을 잡는 것을 보면서 양국 관계는 정말 어렵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대표는 일본 대참사로 조성된 양국 간의 우호적 분위기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털어버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신시대를 열어가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일본 대사를 만나 위로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금일봉을 전달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보여준 웅졸한 처사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못하는 듯 했다.

— 일본이 대지진 참사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보여준 온정은 한일 양국이 불행한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새로 발간되는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 일본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습니다.

△ 그동안 역대 정상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불행했던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신시대를 열어가자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외형적으로는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을 야기함으로써 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일본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지도자나 집단이, 지나친 표현인지는 몰라도, 너무 협량하다고 봅니다. 손백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본이 그 반대의 길로 가면서 일이 어렵게 꼬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 그렇게 웅졸하게 과거에 얽매어 양국 관계를 어렵게 끌고가고자 하는 분위

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전향적으로 일본을 대하고자 하지만 그들은 웅색한 태도를 보이니 참으로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일본은 독도 문제를 실효적 지배라는 현실론이나 역사적 근거보다는 우익 세력 중심의 국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함정에 빠져 나오지 못한 채 한일 관계를 늘 냉각시켜 왔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웃나라를 강점한 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과거사에 대한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우리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마도는 메이지유신이 단행된 1860년대 이전에는 일본 조야에서도 버려놓은 땅입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식량을 얻어가기도 하고 노략질을 하는 등 조선에 상당히 의존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대마도주가 조선의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올리자 “너희는 경상감사의 소관이니 그를 통해서 건의를 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배를 받은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가깝고 주민 생활 근거 역시 조선과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마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와 다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마도는 농사짓는데 적합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크게 가치를 두지 않았지요. 그래서 실효적 지배를 계속하지 않았습다.

1945년 광복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반환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도 대마도 반환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듯이 우리가 대마

도에 대한 영유권을 끊임없이 제기했다면 독도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됐을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신라이후 우리나라의 많은 문헌, 심지어 일본 문헌에서도 우리 땅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일본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법률가로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해 자료를 축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에는 정당성이 없지만, 저들이 되지 않을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렇게 하는 의도를 알고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일본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침묵만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침묵은 상황에 따라서는 동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효적 지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반격할 것은 반격해야 합니다. 결국 억지 주장을 펴는 측이 그것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분규는 끝날 수 없고, 양쪽이 평화롭게 해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물론 과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잠정수역, 이른바 공동관리수역에 넣었습니다. 참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국의 경계선은 일본의 가장 서쪽 섬인 이키와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섬인 독도 사이의 중간선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당시 울릉도와 이키 섬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도가 공동관리수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제해양법에 보면, 섬(Island)과 바위(Rock)는 지위 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섬은 고유의 영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EEZ(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섬은 사람이 살 수 있고, 만조 시에도 육지로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도가 바위에 불과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독도를 Island로 보고 이

키라고 하는 Island와 중간 지역에 경계선을 설정해야 하는데 독도를 Rock로 보고 경계선을 잘못 그은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돼 있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선길씨였습니다. 그후 노무현씨가 장관으로 왔는데, 제가 국회 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따졌고, 노 장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영토협정이 아닌 어업협정이지만 우리 정부가 정말 소홀하게 다뤘다고 봅니다. 일본이 독도 인근에 조사선을 파견하는 것도 그러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독도 문제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일본의 주장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면서 많은 자료를 축적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본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때도 당당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한일 간에 진정한 미래 지향적 관계가 형성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진정 한일 파트너십,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공동 번영을 생각한다면 독도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라거나 이중성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관계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시요.

△ 어느 나라나 영토문제는 대단한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국에 대해 매우 이해심이 깊은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국민을 일방적인 주장으로 몰고 간다면, 우리의 속된 표현으로 대못을 박아놓으면 빼내기가 힘듭니다.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이 어느 시기에 더 이상 명시적 거론을 하지 말자는 정치적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이 양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자고 하는, 전향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을 때 넘어지듯이 관행적으로 이 문제는 굴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본 대지진 참사가 일어난 뒤 한일친선협회 부회장

최근 저는 우리 국민이 일본을 돕기 위해 성금과 구호품을 내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는 양국이 불행한 관계였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도 달라져 두 나라 관계가 상당히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독도 문제로 다시 냉각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력으로 일본 대사관을 찾아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대사에 위로 인사를 했습니다. 무토 대사는 한국 국민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면서 대단히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교과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문제로 무토 대사가 우리 외교부에 불려가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처럼 양국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일본이 이 민감한 문제를 다음으로 미룬다든가, 혹은 유보하자는 등의 융통성이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 같은 우호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은 양국 관계 발전, 즉 더 큰 이익이나 더 큰 미래를 봐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측이라면 시기라도 조정해 보자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일본은 저것은 저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들의 의지대로 강행했습니다. 너무나 경직되고, 심지어 오랜 번영 끝에 노쇠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이번 대지진으로 인해 공공시설에 수용된 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주먹밥으로 연명하는 등 극한적인 상황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았습니다. 일본이 부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융통성 있게 국민을 보호하거나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로나 도로가 끊긴 것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헬리콥터는 뿔을 하는데 쓰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상식량을 급히 보내 국민을 구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가 찬탄하듯이 국민들은 참용성이 많아 불평한 마디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에 흔한 데모 하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노쇠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임기응변

이 없고 활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정부나 국민과는 정반대입니다.

‘다이내믹 코리아’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있지만, 한류가 태동한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서 크게 발전한 국가가 된 이유입니다. 인구 5,000만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한국이 7번째입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다음이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이지만 다이내믹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터널은 섬나라인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오더라도 일본은 한일터널을 건설할 경우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야가 나서서 터널을 뚫자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점도 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상대하고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대해 무릎을 꿇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트인 마음, 넓은 마음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그런 점에서 부족합니다. 일반 국민 가운데는 그렇지 않는 분이 많이 있지만 정치권력은 여전히 폐쇄적입니다.

한일터널은 단순히 민간 차원에서 회사끼리 모여 돈벌이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오랜 기간의 숙원(宿願)을 펼쳐버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유럽에 평화를 가져오고 유럽연합(EU)이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역사적인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두 나라 정치 세력 간의 타협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 측이 끊임없이 갈등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에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우리 국민이 일본을 돕기 위해 성금과 구호품을 내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는 양국이 불행한 관계였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도 달라져 두 나라 관계가 상당히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독도와 교과서 문제로 다시 냉각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독도나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해 세계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독도의 경우 세계 지도의 80%가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웹사이트가 한국 정부 웹사이트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동댈 것이 아니라 평소에 세계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에 맞춰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외교전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반성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세계를 상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대중요법을 동원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한다는 심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해외홍보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지금 자료는 충분합니다. 그 자료를 잘 정리해서 인터넷사이트나 세계 지도 관련 기관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을 세계만방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나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안이한 태도입니다. 앞으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경우 실효적 지배라는 것이 영유권을 보장하는 유일무이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가령 아무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문전옥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힘이 없어 농사를 못 짓거나 부랑자들이 와서 농사를 짓게 될 경우 실효적 지배는 남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땅이 그들의 것

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토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근원, 권원(權原)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소유였고,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편입돼 있었다고 하는 등기 문서가 있어야 하며, 거기다가 실효적 지배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효적 지배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등기문서에 준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갖춰 외국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과거에는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일본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상 우리가 거기에 응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이제 한일 양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손을 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대승적 차원에서 독도 문제를 극복한 터전 위에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 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앙숙 관계를 청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유로터널 건설이었던 것처럼 한일터널 건설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요.

△ 영국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보다 더 많은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앙숙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대처와 미테랑이라는 결출한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유로터

김기춘, 그는 누구인가

김기춘(金淇春·72) 한일터널포럼 대표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원로정치인이다.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난 김 대표는 1962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60년 사법고시에 합격, 광주, 부산,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법무부 출입관리국장과 검찰국장, 대구 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5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에는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총재특보단장,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거쳐 현재 당 상임고문과 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한일터널포럼 대표 외에도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과 한일친선협회중앙회 부회장, 한국기원 부이사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양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상이나 정치세력들이 수천 년에 걸친 갈등관계를 지양하고 그야말로 앞으로 이웃사촌으로서 서로 번영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일터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널이 건설된 것입니다. 유로터널은 착공 당시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동반자적 관계나 유럽의 평화를 위해 내린 정치적 결단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일터널도 수천 년에 걸친 양국 간의 갈등을 일거에 해소시키고, 자유롭게 이웃마을 드나들듯이 왕래하면서 동질화되고 상호 이해를 깊이 하는데 평화와 우정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양국 국민이 서로 많이 왕래하면서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후세대들은 과거에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상이나 정치세력들이 수천 년에 걸친 갈등관계를 지양하고 그야말로 앞으로 이웃사촌으로서 서로 번영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일터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국의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은 한일터널만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경제성을 놓고 말을 하지만 도쿄와 서울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경제성이 탁월한 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 의하면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후쿠오카와 부산, 혹은 거제도를 오가는 한일터널이 경제성에만 집착해서 건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유로터널을 성사시킨 유럽의 지도자들처럼 통 큰 결단을 한 번 내렸으면 합니다.

저는 한일터널은 작게는 한일 간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의 길, 평화의 터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일 양국 정부나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없다면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일

간의 평화와 공동 번영,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양국 간의 갈등을 계속 조성하면 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이고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면 혹시 우리 국민 중에 과거에 얽매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분이 계시더라도 설득해 나가기가 용이할 터인데 오히려 저 쪽이 한술 더 떠서 장애물을 조성하다 보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 한일터널 건설에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경제적 타당성과 국민 정서 문제입니다. 최근 시장경제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간접 편익을 고려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0이상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건설뿐만 아니라 관광 등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한일터널을 통해 북한을 포함해 한일 양국이 교류가 활성화되고 우호 관계가 강화될 경우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인한 평화 비용 감소는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한일터널 건설은 당장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실현해야 할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까요.

△ 우선 양국 국민 사이에 한일터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적 결단도 국민이 원하게 될 때 가능합니다. 현재 한일터널 외에 한중, 제주 간의 해저터널이 논의되고 있지만 저는 한중해저터널은 별로 필요없다고 봅니다. 남북통일을 전제로 할 때 많은 돈을 들여 한중해저 터널을 뚫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일터널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상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각계각층을 상대로 한일터널이 한일 간의 어두운 역사의 터널을 뚫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는 인식을 넓혀가고, 그것이 일본에도 먹혀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론이 일본으로 전파되고 일본 여론이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산이나 후쿠오카 등 관련 지자체나 경제단체,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지는 분위기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데고, 이러한 바탕 위에 정치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씨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각오가 아니겠습니까. 한일터널은 국토해양부가 교통연구원에 그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할 정도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씨를 키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시작은 작지만 언젠가는 그 결과가 창대하게 이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원전 문제로 양국 교류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관광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양국 국민이 많이 오갈 수 있어야 현실감을 가질 수 있는데, 저렇게 접근을 꺼리는 무서운 땅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까지 멀어지게 됩니다. 자주 보지 못하면 마음까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양국이 이제 멀리 보고 한일터널 프로젝트에 상당한 노력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 한일터널포럼은 양국의 지성과 정치, 경제계 등 오피니언리더들을 묶어 한일터널 추진을 활성화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일터널 프로젝트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일반 대중에게 호소하면 되지만 이것은 일면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먼저 여론을 주도하는 식견 있는 분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세미나 등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알리고자 합니다. 물론 일본 측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적극적이면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고, 일본이 적극적이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

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기술적 측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이나 경제적 문제에 앞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한일터널이 한일 양국 사이에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그러한 신념을 가진 분이 더 많이 나오셔서 공동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정부의 요직은 물론 국회의원 등으로 국가에 봉사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저의 소망이라면 나라가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자유스럽고 더 민주적이고 더 평화스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북문제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그들의 실체를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글로벌스탠더드, 즉 국제적인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현대아산과 금강산 관광 협약을 맺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스탠더드 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을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웅석반이를 대하듯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이제 남북한이 기존에 합의한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일터널을 추진하는데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더 성숙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편을 들면 친일한다는 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를 이기고,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기고, 축구나 야구가 일본을 이기는 마당에 과거에 얽매어 소아병적으로 대한다면 일본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일본이 교과서나 독도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협랑하다고 흉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대지진 참사를 당한 일본 국민을 돕는 과정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올해만은 교과서 문제로 시끄럽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줘야 했는데 정말 아쉽게 되고 말았습니다.㉔

대답 | 권오문 편집장

韓日トンネルは東北アジアと世界の平和を開く道

最近の日本と韓国の関係はジェットコースターに乗ったようにめまぐるしい。両国関係はこれまで日本の朝鮮半島侵奪と言う歴史的悪夢から抜け出せないまま常に緊張関係を維持してきたが、日本の東北地方一帯を襲った大地震と津波という事態を契機に、近来では最も友好的な雰囲気造成された。しかしそれもつかの間、日本政府は新しく改訂された中学校教科書と外交青書を通して両国間で最も敏感な懸案である独島領有権の主張をさらに露骨に繰り広げるなど再び冷却状態に陥っている。

韓日両国がせつかく造成した解氷期を維持できず独島問題で過去に戻っていく昨今の現実をもどかしく見ている人々が意外に多い。韓日トンネルフォーラム代表を引き受けている金洪春(キム・ギチュン)前法務長官もその1人である。金代表は韓日議員連盟会長と在日同胞法的地位委員会委員長を歴任した代表的な日本通であり、現在、韓日親善協会中央会部会長を引き受けている。

「最近の東北地方の地震と津波によって前例のない苦しみを受けている日本の国民を助けるため、過去の悪夢を全て忘れたように我が国の政府と国民が先に立って救護隊を派遣し募金をするなど、日本の人々すら驚くほどに友好的な態度を見せてきました。しかし我々としては納得しがたい独島領有権問題や歴史歪曲などについて考慮することなしに再び足を引っ張るなどの日本の態度を見ながら、両国関係は本当に難しいな、というもどかしさを持たずにいられません」

金代表は日本の大惨事を期に造成された両国間の友好的な雰囲気は、不幸な過去を振り払って前向きな姿勢で新時代を開いていく絶好の機会になり得ると期待して日本大使に会って慰労し、大韓赤十字社を通して金一封を渡すなど、それなりに多くの努力をしてきたが、日本政府が最近示す偏狭な仕打ちに対しては失望を禁じ得ないようであった。

Q： 日本が大地震と言う惨事に苦しんでいる間、わが国民が示した温情は日韓両国が不幸な過去を振り払って新しい時代に入っていけることを確認する契機になりました。しかし新しく発行された教科書で独島領有権主張を強化するなど日本が1つも変わらない事を知り失望する国民が意外に多いです。

A： これまで歴代の首脳や政府の当局者らが不幸な過去にこだわらず前向きな姿勢で新時代を開いて行こうと様々な意見を交わ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日本は外面的にはそれに同調する様な姿を見せながらも、独島領有権主張や歴史教科書歪曲などを引き起こす足を引っ張ってきました。日本をけん引する政治指導者や集団は、行きすぎた表現かもしれませんが、あまりに狭量であるように思います。手のひらも叩けば音が出るように、我が政

府は前向きな態度で臨もうと努力していますが、日本がその反対の道を行くので事が難しくこじれています。

わが国は国際的地位が非常に高くなり、そのように偏狭に過去にこだわって両国関係を難しく引きずっていきこうという雰囲気はありません。わが国民は前向きに日本に対応しようとしていますが、彼らが頑固な態度を見せるので、実に難しいという考え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

Q：日本は独島問題を実効的支配と言う現実論や歴史的根拠よりも右翼勢力中心の国粋的観点でアプローチしています。それで政治的な罫に陥って抜け出せないまま韓日関係を常に冷却させてきました。特に日本は隣国を強制的に占領したことについて反省もなく過去についての歪曲もためらわずにいます。独島問題はどのように解決するべきだと思えますか？

A：われわれは日本が独島について領有権を主張するよりももっと強力な歴史的根拠を持って対馬の領有権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ます。対馬は明治維新が断行された1860年代以前には日本の政府民間から捨て置かれていた地です。対馬の住民たちは生活維持のために食料を貰いに行ったり略奪をしたりなど朝鮮に相当に依存していました。『世宗実録』を見ると対馬の島主が朝鮮の中央政府に建議書をあげると、「お前達は慶尚監司の所管だから彼を通して建議せよ」と指示するほどに我が国の支配を受けた根拠がたくさんあります。対馬は地理的に韓半島に近く、住民の生活のよりどころもまた朝鮮と切り離す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言い換えれば、対馬は韓半島の付属島嶼に他なりません。しかし当時の対馬は耕作に適した土地でなかったため、我々の先祖たちは大きな価値を置かなかったのです。だから実効的支配を継続しなかったのです。

1945年の光復以後、李承晩大統領が記者会見で対馬の領有権を主張すると同時に返還を日本に公式的に要求しました。アメリカ国務部にも対馬の返還について協力要請しました。日本が独島の領有権を主張するように我々が対馬の領有権を絶えず提起していたなら独島問題が困難なく解決したでしょう。

独島は我々が実効的に支配しており、新羅以降のわが国の多くの文献、さらには日本の文献にも我々の土地であると出ています。しかし日本が独島の領有権主張を強めるのは国際司法裁判所に持って行こうとする意図であるからと見えます。今、国際司法裁判所長は日本の方です。つまり私は法律家として、日本が独島問題を絶えず提起しているのは、国際司法裁判所に行くために資料を蓄積しようとしているからだと思っています。

しかし我々が独島を実効的に支配しており、歴史的にも我々の土地であることが明らかですので日本の主張には正当性はありませんが、彼らが無理なことを以てしきりにあのようにする意図を知り、しっかり対処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もちろん日本が言いがかりの主張を繰り返している状況下で我々が沈黙するだけというわけにはいきません。法律的に見る時、沈黙は状況によっては同意と見ることができます。ですから我々も実効的支配を絶え間なく強化し、反撃すきは反撃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結局、言いがかりを繰り返す

側がそれをやめない限り紛糾は終わりませんし、双方が平和的に解決することが難しくなります。

もちろん過去、政府がこの問題を処理する過程において残念な点がなか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金大中政府の頃に新韓日漁業協定を締結し、独島を暫定水域いわゆる共同管理水域に入れました。実に間違いであったと思います。両国の境界線を日本の最も西側の島である壱岐と我が国の最も東側の島である独島の間の中間線に策定すべきであるのに、当時、鬱陵島と壱岐の中間線を境界線としたのです。そうすることで独島が共同管理水域に入ることになりました。国際海洋法を見れば、島(Island)と岩(Rock)は地位の上で相当な差があります。島は固有の領海を持つだけでなくEEZ(排他的経済水域)設定の基準になります。そして島は人が住むことができ、満潮時にも陸地を残している地域です。しかし我々は独島が岩に過ぎないという日本の主張に同調してしまいました。結局、我々が独島をIslandであると見て壱岐というIslandとの中間地域に境界線を設定すべきであるのに独島をRockであると見て境界線を誤り彼は失敗を犯したのです。その当時、私は農林水産委員会に所属しており、海洋水産部長官はキム・ソンギルさんでした。その後、盧武鉉さんが長官として来たのですが、私が国会の質疑を通してこの問題を問い詰め、盧長官も個人的には同意すると言ったことがあります。もちろんそれは領土協定ではなく漁業協定でしたが、我が政府がその問題を本当におろそかに扱ったように思いました。日本が独島近隣に調査船を派遣するというのもそのようなことに根拠を置いているのです。

いずれにせよ独島問題は我々が実効的支配を強化し、日本の主張に対して歴史的根拠を以て反駁しつつ多くの資料を蓄積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こそ日本がこの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持っていく時も堂々と戦うことができます。良い事は良いのだと沈黙しては駄目です。この問題が解決せずに日韓間に本当の未来志向的關係が形成されるのかという疑い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ですから日本は本当の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韓日両国の未来志向的共同繁栄を考えるのであれば、独島問題をこれ以上取り上げるべきでは無いのです。

Q：日本は近くて遠い国と言う二重性について多くの人が指摘しています。韓日両国関係においても同様です。両国関係の根本的発展のためにどんなことが必要なのかお話し下さい。

A：どの国でも領土問題は非常に敏感な事案です。そしてこれは政権次元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ですから相手国について非常に理解が深い政権が立ったとしても国民を一方的な主張に追いやると我々の俗っぽい表現では「大釘を打つと抜くのが大変だ」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す。独島問題は韓日両国が、ある時期にこれ以上明示的に取り上げないようにしようという政治的大妥協があるべきだと思います。日本の国民から本当に支持を受ける政治勢力が両国の共同繁栄と発展のため、これ以上この問題で消耗戦をしないでおこうという、前向きにめでたく幕を下ろせる政治的決断がなければ、ずっと繰り返されるしかない

のです。ちょうど自転車 pedal を踏まないと倒れるように慣性でこの問題は転がっていくのです。

私も日本の大地震という惨事が起きた後に韓日親善協会会長の資格で日本大使館を訪ね武藤正敏大使に慰労の挨拶をしました。武藤大使は韓国の国民がここまでしてくれるとは思わなかったと言ひ、大変感謝していると言ひました。しかし何日か後に教科書問題が起きました。この問題で武藤大使は我が国の外交部に呼ばれて抗議を受けました。日本の二面性ある姿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本当に皮肉なことであつたとしか言えません。私は、せつかく両国間に友好的な雰囲気を作られたのに日本がこの敏感な問題を次に持ち越すなり、あるいは保留するなどの融通性や相手側に配慮する気持ちが無いことにひどく失望しました。このような友好的な雰囲気に冷や水を浴びせることは両国関係の発展、すなわちより大きな利益やより大きな未来を考えると適切ではないと思います。つまり、我々の側としては時期を見て調整しようとするのに、日本はそれはそれ、これはこれと言って、ただ自分たちの思うままに強行したのです。あまりに硬直しており長い繁栄の果てに年老い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感じさえ受けました。

今回、大地震によって公共施設に収容された住民たちが寒さに震え、簡易食で延命しているなどの極限的な状況をテレビで見ました。日本は豊かな国家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融通性を以て国民を保護し支援できないのだと感じました。鉄道や道路が使えないのは理解するとしてもヘリコプターは何のために使うものなのだという事です。非常食を急いで送り国民を救済すべきであるのに、そうできなかったのです。さらに世界が賞賛するように国民は忍耐力が強く不平の一言も言わないようでした。いわゆる我が国にありふれたデモのひとつもしないのです。結局、日本政府が老衰して融通がきかないのをここでも確認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臨機応変さがなく活力が落ちたのです。我が国の政府や国民とは正反対です。

「ダイナミック・コリア」は明るい面と暗い面がありますが、韓流が台頭した背景だと見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が韓国が世界で大きく発展した国家になった理由です。人口5,000万を超え国民所得2万ドルを突破した国は韓国が7番目です。アメリカとドイツ、日本、フランス、イギリス、イタリアの次が韓国です。我が国は小さな国ですがダイナミックに発展しているのです。

韓日トンネルは島国である日本が大陸に進出できる活路です。ですから我々が消極的であつても日本は韓日トンネルを建設した場合、島国ではなく大陸国家として浮上できるという点で、官民間わらずトンネルを開けるべきなのに、そうできないのです。日本のこのような点も活力が不足しているからです。ですから、日本を相手にするとやりにくいです。日本は"天皇"を中心にした国粹主義的で閉鎖的な雰囲気が支配しています。世界に向かって広がって行く姿を見せずにいます。ドイツはアウシュビッツ大虐殺について膝をついて心のこもった謝罪をした、ものの分かった心、広い心を見せていますが日本はそういう点で不足しています。一般の国民の中にはそうではない方がたくさんいますが、政治権力は依然として閉鎖的です。

日韓トンネルは単純に民間次元の会社が集まって金儲けをするプロジェクトではなく、イギリスとフランスが長いあいだの宿怨を払いのけて政治指導者たちの決断によってヨーロッパに平和をもたらし、ヨーロッパ連合(EU)が誕生するきっかけを作った歴史的なメガプロジェクトです。それには当然ふたつの国の政治勢力間の妥協と強調が必要です。しかし日本側は絶えず葛藤要素を提供しています。ですからこのことに使命感を持っている者達にとっては大きな障害物として作用するのです。最近私は我が国民が日本を助けるために義援金と救護品を出すのを見ながら、過去には両国は不幸な関係にあったが、これからは韓国に対する日本国民の認識も変わっていき、二つの国の関係が相当に発展するだろうと期待を持ちました。しかし独島と教科書問題でまた冷却してしまったのは本当に不幸なことと言うほかありません。

Q：我が国の政府や国民が果たしてどれだけ独島や過去の出来事の問題など、日韓の間の懸案について世界が認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論理的に、あるいは外交的にアプローチ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特に独島の場合、世界地図の80パーセントは日本の立場を反映しており、日本政府のウェブサイトが韓国のウェブサイトより精巧につくられている等、日韓の懸案について我が国の政府の姿勢は非常に安逸であるという指摘もあります。我が国の政府が、問題が起こるたびに慌てるのではなく、普段から世界社会の普遍的価値観に合わせて説得的論理を開発し、外交戦をくりひろ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我が国の政府が反省すべきことがあれば指摘してください。

A：日本は経済大国として世界に対する影響力が非常に強い国です。でありながら彼等は非常に組織的に世界に対応していますが、我々は事がおきるその時ごとに対処療法を動員してきたのは事実です。特に独島問題については国際司法裁判所で裁判する気持ちで対処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海外広報院で継続してこの問題を正確に知らせるべきです。今、資料は十分にあります。その資料をしっかりと整理して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や世界地図の管理機関に詳細な情報を提供することによって韓国の主張が説得力のあることを世界の方々に知らせる必要があります。我々はそのような努力が相当に不足していたと思います。我々が実効的支配をしているのに何の関係があるのだという人々もいるでしょうが、これは安易な態度です。これから国際司法裁判所でこの問題を扱っていく場合、実効的支配は領有権を保証する唯一無二の証拠資料とはなりえません。たとえどんなに自身の名前で登記がされた門前の美田であったとしても彼に力がなく耕作することができず浮浪者たちが来て耕作するようになった場合、実効支配は彼等が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もちろん、その土地は彼等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同様に我々の領土になるためには権利の根源、権源が我々になければなりません。昔から我々の所有であり、我が国の行政区域に編入されていたという登記文書がなければならず、そうでこそ実効的支配が成り立つのです。ですから実効的支配だけでは足りず登記文書に準ずる歴史的事実で裏付け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な資料を十分に揃えて外国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そのような論理が過去には不足していたのなら、今にでもさらに強化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勿

論日本がおとなしくしていればいいのですが、絶えず挑戦してきている以上、我々はこれに応戦し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と思います。

Q：これから韓日両国が近くて近い国として手を握って行くためには過去の出来事についての本当の反省と大きな視点で独島問題を克服した基盤の上に日韓の新時代を開いていくイベントが必要だと思います。イギリスとフランスが恨み深い関係を清算する重要な契機がユーロトンネル建設であったように、日韓トンネル建設は両国関係を一段階引き上げることのできる重要な契機になると思うのですが。

A：イギリスとフランスは歴史的に韓国と日本よりさらに多くの戦争と葛藤によって染み付いた恨み深い関係にありました。しかしサッチャーとミッテランという傑出した指導者の政治的決断によってユーロトンネルが建設されたのです。ユーロトンネルは着工当時、経済性が高いために始まったのではなく両国のパートナー関係やヨーロッパの平和のために下された政治的決断によって可能になりました。同様に日韓トンネルも数千年にわたる両国間の葛藤を一挙に解消し、自由に隣の町に出入りするように往来しながら同質化し、相互理解を深め、平和と友情の道となりうると思います。現在も両国の国民がお互いに沢山行き来しながら相互理解が深まっていますし、特に戦後世代は過去に大きく縛られてはいません。ですから両国の未来を見通す首脳や政治勢力が数千年にわたる葛藤関係を止揚し、それこそこれから隣同士としてお互いに繁栄しながら幸福に暮らして行くことが出来るよう、韓日トンネルという巨大なプロジェクトの推進のために政治的決断を下せばいいと思うのです。いうなれば、両国の葛藤関係を解消できる手段として韓日トンネルほどのものはないと思います。

日本では経済性をめぐって話をしていますが、東京とソウルを直接繋げるのでなければ経済性について卓越したものが出てくる訳ではありません。もちろん、一部の研究によればかなりの水準の経済性が備えているものと評価されていますが、福岡と釜山、あるいは巨済島を行き来する韓日トンネルは経済性にだけ執着して建設できるものではないと思います。ですから両国の政治指導者達がそこについての深い理解を持ち、ユーロトンネルを成し遂げたヨーロッパの指導者達のように大きな決断を一度下してほしいのです。

私は韓日トンネルが小さくは韓日間はもちろん、東北アジアの平和、さらには世界平和に寄与する平和の道、平和のトンネルだという考えを持っています。このプロジェクトは韓日両国の政府や政治指導者の決断がなければ実行することが難しいです。ですから経済的な必要性和効率性が低くても韓日間の平和と共同繁栄と東北アジアと世界平和のために必ず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国民の共感帯形成が優先されるべきです。

しかし日本が両国間の葛藤を継続して造成するなら、それをするのに困難が伴うしかありません。その場合、我が国民を説得するのも難しいです。日本が独島の問題や教科書問題などについて前向きで寛容な姿勢をとれば、あるいは我が国の国民のうちで過去に縛られてこの問題について消極的な方がいたとしても説得が容易になるでしょう。しかしむしろあちら側はさらにひどいことをして障害物を作り出してくるので残念です。

Q：韓日トンネルの建設について最も論難が多いのが経済的な妥当性と国民の情緒の問題です。最近の市場経済研究院の研究資料に従えば、間接便益を考慮した場合、費用対便益比率(B/C)が1以上も可能だという結論に達しました。そして建設だけではなく観光などの関連事業の波及効果は想像を超えるものだと現れました。もちろん、韓日トンネルを通して北朝鮮を含め韓日両国の交流が活性化し、友好関係が強化された場合、韓半島の緊張緩和による平和費用減少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韓日トンネル建設は直ちに成し遂げられないとはいっても、いつかは実現すべき課題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プロジェクトです。これからどのような過程を経て段階的に推進すべきでしょうか。

A：まず、両国の国民のあいだに韓日トンネルの建設の必要性についての共感帯を作り出すのが重要だと思います。政治的な決断も国民が求めるようになる時に可能です。現在、韓日トンネル以外に韓中、済州間の海底トンネルが議論されていますが、私は韓中海底トンネルは必要ないと思います。南北統一を前提としたとき、多くのお金をかけて韓中海底トンネルを通す必要はないと思います。

韓日トンネルが国民の共感を得るためには相互のフィードバックが必要です。つまり、韓国が各界各層を相手に韓日トンネルが韓日間の暗い歴史の開けて明るい未来を開いていく象徴的なプロジェクトなのだという認識を広げていき、それが日本にも受け入れら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ですから韓国の世論が日本に伝播して日本の世論が韓国に渡って来ながらシナジー効果を高め、国民的共感帯を拡散させる過程が必要です。これを通して釜山や福岡などの関連自治体や経済団体、さらに全国的にこのプロジェクトを推進しようという雰囲気が野原の火の手のように広がっていき、このような土台の上に政治的決断がな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すから、その火種の役割を果たそうとするのがこれを推進する人たちの覚悟ではないでしょうか。韓日トンネルは国土海洋部が交通研究院にその妥当性研究の委託を依頼するほど目に見える成果が現れています。ですから、そのような火種を育てることを我々はすべきことだと思います。始まりは小さいですがいつかはその結果が壮大に成就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最近では日本の原発問題で両国の交流が立ち止まっています。これから両国関係もかなりの打撃が憂慮されます。そう考えれば我々の話が空虚に聞こえるでしょう。両国の国民がたくさん行き来してこそ現実感を持つことができるのですが、あのように近づきがたい恐ろしいところが変わってしまったので心まで遠くなってしまいます。しばしば会わなければ心まで遠ざかるということです。両国がこれから遠くを見て韓日トンネルプロジェクトに相当な努力を集中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時が近づいています。

Q：韓日トンネルフォーラムは、両国の知性と政治、経済界などのオピニオンリーダー達をまとめて韓日トンネルの推進を活性化する集まりだと存じ上げています。これからの計画がありましたら。

A：韓日トンネルプロジェクトがじかに目に見えるものならば一般大衆に訴えかければいいのですがこれは一面、抽象的な価値を追求するプロジェクトであるため、まず世論をリードする見識のある方々、各界各層の指導者たちにセミナーなどを通してこの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お知らせしようと思います。もちろん日本側でもこのような努力をして頂ければと思います。つまり、我々が積極的になれば日本がさらに積極的に出てきて、日本が積極的になれば我々ももっと積極的に出るというシナジー効果がうまれるべきなのですが、現在、そう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日本はこれまで技術的側面に多くの感心を傾けてきました。しかし技術的側面や経済的問題よりも前に国民の共感帯の形成や政治的決断がなければならぬと思います。まず韓日トンネルが韓日両国のあいだに平和の道を開いていくことができるメガプロジェクトであるという共感帯の形成が重要なので、日本側でもそういう信念を持った方がもっと沢山出ていらっしやって共同作業をしたらいいと考えています。

Q：これまで政府の要職はもちろん、国会議員などで国家に奉仕なさっていらっしやいました。これからの計画がおありでしたらお話し下さい。

A：今、私の望みといえば、国が良くなることを願うのみです。大韓民国がもっと自由で民主的でさらに平和になるのを望んでいます。そして政府が対北問題について賢く対処すればと思います。彼らの実態をよく知り賢明に対処すればいい、ということです。今、北朝鮮は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すなわち国際的な規範に合わない行動を見せています。例えば、北朝鮮は現代峨山と金剛山の観光協約を結んで一方的に破棄するのです。我々の自由社会では想像できないことです。ですから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の上でことを行なえるよう北朝鮮を啓導する必要があります。過去には我が政府は駄々っ子を扱うように北朝鮮の要求を受け入れてやりましたが、これからは南北韓が既存に合意した通りに行動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して健全な市民の一人として韓日トンネルを推進することについて、熱心にこころをつくして頑張ります。これから我々の社会もより成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日本の肩をもてば親日だと規定しては駄目だということです。キム・ヨナが浅田真央に勝ち、サムスン電気がソニーに勝ち、サッカーや野球で日本に勝ったということで、過去に縛られ小児病的に対するのでは日本を非難できません。そうした場合、日本が教科書や独島問題を扱うやり方について、狭量だ、と陰口は言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そういう点で我々も心を開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我が国民が大地震の惨事にみまわれた日本の国民を助ける過程でそのような姿を見せ、同様に日本も今年だけは教科書問題で騒がしくならないように努力する前向きな姿勢を見せるべきだったのに、本当に難しくなっていました。